

하서 세상이 되었다

국립광주박물관, 11월 11일까지 '河西 김인후와 필암서원' 특별전
삶·학문 조명 유물 100여점...필암서원 문서도

장성에서 태어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 선생은 16세기 대표적인 성리학자지만 그의 학문과 사상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퇴계 이황과 학문으로 쌍벽을 이뤘던 하서는 문묘(文廟)에 모셔진 정몽주, 이황 등 '동국 18현(東國十八賢)' 가운데 유일한 호남 인물이다. 그의 삶은 호남철정의 근간을 이뤘다. 그는 제자로 가르쳤던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자 관직에서 물러난 뒤 15년 동안 다른 임금을 섬기지 않고 초야에서 학문을 닦았다. 하서는 호남의 유학자들에게 학문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다. 그는 면암정 송순의 문인이고 송강 정철의 스승이기도 하다. 또 소쇄원을 지은 양산보나 미암 유희춘 등 당대의 문장가들과는 사문 시간으로 학문과 교분을 나눴다. 특히 하서는 퇴계가 황화 8년 동안 '사칠논변(四七論辯)'을 펼침으로써 조선 지성사에 한 획을 그은 고봉 기대승(광산 출신)의 학문에 지장을 공급한 유학자였다.

국립광주박물관이 18일~11월11일까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하서 세상이 나온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인후의 가계와 출사 ▲인종과의 만남 ▲조선성리학과 하서 ▲선비정신과 시(詩) 세계 ▲하서와 필암서원 ▲하서의 문묘배향 등 6부로 나뉘어 모두 1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가계와 출사'에서는 김인후 선생의 아들, 손자가 임금에게 받은 교지와 가정사를 비롯, 장성에서의 어린 시절과 벼슬길에 오르는 삶이 조망된다.

특히 '인종과의 만남'에서는 인종이 하서에게 직접 그려주고 선물한 '인종대왕 목죽도'와 '주자대전' 등 인종과의 깊은 인연을 소개하는 유물이 전시된다.

당대 성리학의 최대 화두였던 리(理)와 기(氣)를 그림으로 해설한 '천명도(天命圖)', 하서집(책), 하서집 목판본 등 하서의 성리학 업적이 담긴 유물은 '조선성리학과'에서 소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보물(제587호)인 '필암서원 문서일괄'도 포함돼 있다. 전시유물은 총 14책 64매로 필암서원의 역대 원장을 기록한 '원장선생안', 교관과 수강생들의 명단을 담은 '보강안', 유생들의 명단을



김인후 선생 시(위)와 인종이 하서한 목죽도.

기록한 '서재유안서' 등이다.

'하서의 문묘배향'에서는 전라도 유생 양학연이 하서 선생의 문묘배향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린 것을 비롯, 문묘배향을 결정하는 교서와 교지 등 자료가 전시된다. 문의 062-570-7028.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하서집

고봉 기대승선생 학술심포지엄

20일 광산구청 회의실...오종일·황의동 교수 등 주제 발표

광주 출신 성리학자 고봉(高峯) 기대승(1527~1572)의 학문세계를 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광산문화원(원장 류복현)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 광산구청 7층 회의실에서 '고봉 기대승의 학문과 한국 유학사적 위치'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종일 전주대 교수가 '고봉과 퇴계의 인간적 교연'을, 윤사순 고려대 명예교수가 '고봉 학문의 특징과 그 선진성'을, 황의동 충남대 교수가 '한국 유

학에 있어서 고봉 성리학의 위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중 동산대 교수, 경철 광주불교대학원장, 고영진 광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황 교수는 "기대승의 철학은 기존 성리학에서 무시돼온 기(氣)의 위상을 복원시켰으며 한국 성리학이 보다 인간중심적 성격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성리학의 현대적 의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 '자유부인' 이젠 문화재

문화재청, '미몽' 등 고전영화 7편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은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현존 최고(最古) 영화로 식민지시대 신여성과 근대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미몽'(1936) 등 한국고전영화 7편이 문화재로 등록됐다고 17일 밝혔다.

미몽 외의 등록문화재는 광복 후 최초의 영화이자 본격 극영화로서 광복과 항일을 소재로 한 멜로·액션영화 '자유부인'(1946), 국내 현존 유일의 무성영화인 '검사와 여

선생'(1948), 산사의 고요한 생활을 배경으로 모정을 표현한 '마음의 고향'(1949), 반공 휴머니즘을 표방한 '피아골'(1955), 각종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자유부인'(1956), 국내 최초의 해외영화제 수상작 '시집가는 날'(1956) 등이다. 이를 기념해 다음달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4~12일)에서는 이 영화들을 특별상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립발레단, 19~20일 순천문예회관에서 '카르멘' 공연

발레, 그 특별한 만남

발레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무용 장르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분야다. 하지만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작품은 '지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 고전 발레가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퍼포먼리를 접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발레단이 19~20일(오후7시30분) 이틀간 순천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마츠에크 안무의 발레 '카르멘'은 지역 발레팬들에게 아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발레의 이단아로 꼽히는 마츠에크는 요부카 등장하는 '지젤', 요절한 10대 마약 중독자가 공주로 나오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대머리 백조가 등장하는 '백조의 호수' 등 고전 작품에 대한 파격적인 해석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안무가다. 이번에 국립발레단과 작업한 '카르멘' 역시 기

존 작품의 틀을 헤쳐, 전혀 새로운 발레로 탄생시켰다.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무대에서 시가를 피우고, 뺨을 때리고 바닥을 핑구는 등 파격을 선보여 서울 공연 당시 화제를 모았다.

또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에서는 좀처럼 공연되지 않는 '레 실피드'도 함께 선보인다. '피아노의 시인' 소프의 음악을 배경 삼아 진행되는 '레 실피드'는 특별한 스토리 없이 다양한 춤들로 구성된 특이한 특징. 단 한명의 남성 무용수와 3명의 발레리나가 여러명의 공기의 요청으로 분한 여성 무용가들과 다양한 춤을 선보인다.

이번 순천공연에는 김현웅·김주원·이원철·노보연·이영철·윤해진씨 등 국립발레단의 대표 무용수들이 출연한다. 2만원, 1만5천원, 1만원. 문의 061-749-351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위문공연

18일 남구 봉선동 귀일원

사랑실은 노래 봉사단(단장 김효중)이 추석을 맞아 18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귀일원에서 위문공연을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종찬, 이애자, 곡승봉, 김유하, 이다영씨 등이 '곤드레 만드레', '별난 사람' '진짜 멋쟁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또 상무대 군악대, 카루스 안무단, '코리아스단' 등이 출연하며 귀일 요양원생들의 장기자랑 무대도 마련된다.

공연 전에는 서정 치과에서 무료 치과 진료를 해주며 KT전남본부와 미르치과, (주)화인코리아에서 위문품을 전달한다.

지난 1993년 모임을 꾸린 '사랑실은 노래 봉사단'은 매월 한차례씩 양로원 등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 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86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6억9천만원(물품 포함)의 위문품을 전달했다.문의 062-652-05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佛문화원 특강

19일 김은영씨 '루브르미술관'

프랑스 미술관을 중심으로 세계의 미술관을 둘러보는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프랑스문화원(원장 최승은)이 19일 오후 3시 문화원 강당에서 두번째 행사를 갖는다.

이번 강연 주제는 '세계 예술의 보물 창고-루브르 미술관'으로 강사는 김은영(조선대 미학미술사학 박사·전남대 미술학과 강사)씨다. 문의 062-527-2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동요 '햇볕은 쨍쨍' 노랫말 표절?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으로 시작되는 동요 '햇볕은 쨍쨍' 노랫말이 표절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출간된 아동문학 계간지 '시와 동화' 가을호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 '즐거움 생활'에 실린 '햇

볕은 쨍쨍'의 작사가가 '최옥란'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920년대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한 '공창현'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특집을 실었다.

민중환 부천대 교수는 "1924년 6월 나온 휘문고등보통학교 교지에 고내 백일장 시 부문 가작 수상작으로 공

창현의 '햇볕은(당시 표기)이 실려 있다"며 "두 작품을 대조해보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총체적 인상이 동일작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지난해 나온 '휘문 100년사'에도 '당시 시 부문 가작으로 뽑힌 공창현 군의 작품은 그후 동요로만 알려져 수많은 학생들에게 애창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Movie listing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inner's Cinema, and Mudeung극장. Includes showtimes and movie titles like '마이피더', '권순분여자 남치사건', '두 얼굴의 여친'.